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産前敎育)이 초임부의 상태—불안(狀態—不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 영 숙**

목	차
I. 서 론	IV. 고 찰
II. 연구대상 및 방법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결과	참고문헌
A. 연구대상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	영문초록
B. 구체적 목적에 대한 결과분석	

I. 서 론

분만은 대부분의 여성이 겪게 되는 정상적인 생리과정이지만 잘못되어 병적으로 이행되면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기도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나 건영, 1975).

이러한 분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주요요소는 분만개조자의 자질, 시설 및 임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의학기술 및 간호학의 발달로 분만개조자의 지식이나 기술 및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되어 왔으나, 임신부로 하여금 분만생리를 비롯하여 분만과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도하는 산전교육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와서야 강추되고 있다.

과거로부터 여성에게 있어 분만은 심한 고통으로 인식되어져 왔고(Bloss, 1950) 또한 대부분의 임부들은 분만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중에는 분만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나 불만을 느끼게 된다(Fitzpatrick et. al. 1971). 이러한 공포나 불안이 점차 증가되어 분만에 이르러서는 그 정점에 달하게 되어 분만시에는 심한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 공포, 긴장 및 불안을 느끼게 되며(Lubin, et. al. 1975) 이러한 감정은 내분비계통과 신경계통을 통해 태아와 분만에 영향을 미쳐 난산이나 분만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Davids et. al. 1962). 이와같이 임부의 분만에 대한 태도가 분만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산전건강관리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임부에게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길러

자신의 분만과정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Goetting, 1977).

근래에는 효과적인 산전건강관리로서 임부에게 분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하고 분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교육계획이 대두되고 있다(Chave et. al. 1977).

Read(1947)는 분만의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분만은 문화의 발달에 따라 고통과 위험을 수반하는 위기라는 관념으로 변화되어 동통—공포—긴장—동통의 악순환으로 고통이 배가되며 따라서 분만에 관련된 불필요한 공포 및 불안감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분만의 해부, 생리, 분만의 자연적인 경과, 산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amaze는 Pavlov의 조건반사 이론에 근거하여 정신신경예방학적 출산(Psychoprophylactic Childbirth)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임신말기의 해부와 신경근육활동, 분만의 기전 및 진행경과를 교육시켜 분만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해소시키고 무통의 효과를 거두려는 교육계획을 포함하고 있다(Karmel, 1959).

Willmuth(1975)는 임부들에게 분만에 대비하여 임신기간중 분만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분만중의 산부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분만과정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임부의 지각조절은 임신, 분만, 분만 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도: 하영수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조자 및 시설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완전하게 이해하므로써 이루어지며 그 효과는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식감이 생길 뿐 아니라 분만에 연관된 공포나 불안감이 완화되고 신체적인 평안을 느끼게 진동이 경감되는 것이라고 하였다(Willmuth, 1975).

근대에 미국의 경우, 모성센터협회(Maternity Center Association), 방문간호원협회(Visiting Nurse Association) 및 여러종합병원의 산과에서는 산전건강관리의 일환으로 가임부부를 대상으로 분만에 대한 준비와 임신 및 산후기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임신부와 영아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Fitzpatrick, et, al. 197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분만준비를 위한 임부교육에 대하여 연구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문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신말기의 초임부에게 부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실시하여 초임부의 상태-불안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임부교육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산전교육은 초임부에게 분만의 정상경과를 올바르게 이해시켜 분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포나 불안을 경감시키며 분만경과에 따른 임부 스스로의 역할을 알아서 분만과정에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말기(36주 이상)에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초임부와 받지 않은 초임부사이에 상태-불안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임신말기에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초임부의 연령, 학력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3. 임신말기 초임부의 연령, 학력, 종교, 임신 제36주부터 분만시까지의 임신주수, 현재 임신의 수용여부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용어의 정의

초 임 부: 과거에 임신한 경험이 없는 처음으로 임신한 부인을 말한다.

분만의 정상경과: 임신 제39주부터 제42주 이내에 태아가 모체에서 정상태위를 가지고 자연의 만출력에 의해서 질로 만출되는 과정, 즉 분만진통의 시작부터 태아만출, 후산의 배출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상태 불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상태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상상태로 특정한 시기 및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Spielberger, 1970). 본 연구에서는 초임부가 분만에정일이 임박한 임신 제36주이후인 상태에

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산과외래에 1979년 5월 1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산전건강관리를 받으러 온 초임부중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산전관리기록표에 의해 임신제36주이상이며 태위는 두위이고 단태이고 그의 임신중 중증의 합병증이나 질병을 갖고 있지 않고 자연질식분만(自然膣式分娩)을 예정하고 있는 건강한 초임부로서 본 연구에 참여키로 승락한 15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위한 교안과 자기보고형의 상태-불안측정검사지이다.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위한 교안은 모성간호학 (하영수, 1979), 최신 산과학 (나진영, 1975), 임신부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이미라, 홍경자, 문혜미, 1973), Maternity Nursing(Fitzpatrick, Reeder, Mastroianni, 1971), 한국 교육개발원 교수모형 (김영호, 1973), 교수학습의 실제 (이종섭, 장종태, 이형식, 1978)에 준거하여 간호학자, 교육학자 등과 상의하여 정상경과와 이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임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초임부의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학습효과를 강화시키며 연구대상 초임부들에게 같은 경험을 주기 위하여(유태영 외, 1976) 청색, 적색, 흑색을 이용하여 그린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련된 그림 11매(40cm×30cm)를 부수교재로 사용하였다.

상태-불안측정도구는 Spielberg에 의해 제작된 자기보고형의 상태-특성불안측정도구(State-Trait Anxiety Inventory)의 일부로서 침착성과 안정성, 만족감 등을 포함하는 10개문항과 불쾌감, 긴장, 우울, 신경과민, 근심, 걱정 등의 느낌을 포함하는 10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이다.

이 도구는 우리나라에서 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정택(1978)에 의해 예비연구가 실시되었고, 또한 K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1978)에서 각 문항마다 신뢰도 검증이 끝난 것이다(신뢰도 $\alpha=0.87$).

본 연구의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로서 연구자가 1979년 4월 16일부터 26일 사이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산과외래에 산전관리를 받으러 온 20명의 초임부에게 실시했고, 산전교육에 관한 교안의 사전조사는 위의 20명중 5명에게 실시하여, 두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산과외래에 산전건강관리를 받으러 온 초임부중에서 산전관리기록표를

면밀히 조사한 후 대상을 선정하여 오는 순서대로 기수는 실험군으로 우수는 대조군으로 정하였다. 먼저 두 집단 모두에게 상태-불안측정도구를 사용하여 1차조사를 실시한 후 실험군에게 계속해서 본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게 하였다. 교육방법은 1회 40분간의 강의형태를 취하였으며 강의내용이나 그의 본만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응답을 해주었고 교안의 일부인 강의내용을 유인물로 주었다. 2차조사는 두 집단 모두에게 1차조사후 다음번 정기적 산전건강관리일인 1주일후의 1차조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1차조사는 모두 167명이 조사받았으나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경우와 2차조사를 받지 못한 17에는 제외시켜 실제 연구대상은 실험군 75명, 대조군 75명으로 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상태-불안측정검사에서 불안의 정도를 Likert의 누적평정법을 이용하여 4단계로 점수를 주어 최저20점에서 최고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은 심한 것으로 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Softwar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집계하였고 점수의 평균

차이의 차이는 F-test와 t-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1. 대상선정에 있어서 1개의 종합병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초임부 150명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전국수준에서 일반화 할 수 없다.

2. 본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효과측정에 있어서 단지 자기보고형의 상태-불안반응만으로 측정되었으므로 교육에 의한 임부의 태도변화등의 포괄적인 효과는 알아볼 수 없었다.

III. 연구결과

본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이 초임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연구대상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연구대상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실험군		대조군		제	
	실수(75명)	백분율(%)	실수(75명)	백분율(%)	실수(150명)	백분율(%)
연 령						
20-24	18	24.0	23	30.7	141	27.3
25-29	53	70.7	48	64.0	101	63.3
30"-33	4	5.3	4	5.3	8	5.3
학 력						
중 졸	2	2.7	3	4.0	5	3.3
고 졸	41	54.7	30	40.0	71	47.3
대졸이상	32	42.7	42	56.0	74	49.3
종 교						
기 독 교	34	45.3	21	28.0	55	36.6
천 주 교	20	26.7	32	42.7	52	34.6
불 교	11	14.7	12	16.0	23	15.6
기 타	2	2.7	1	1.3	3	2.0
무	8	10.7	9	12.0	17	11.3
임신주수						
36주	25	33.3	20	26.7	45	30.3
37주	14	18.7	16	21.3	30	20.0
38주	12	16.0	11	14.7	23	15.3
39주	15	20.0	17	22.7	32	21.3
40주이상	9	12.0	11	14.7	20	13.3

일반적 특성	실험군		대조군		계	
	실수(75명) 백분율(%)		실수(75명) 백분율(%)		실수(150명) 백분율(%)	
<u>현재 임신의 용납여부</u>						
원 함	66	88.0	68	90.7	134	89.3
원치않음	9	12.0	7	9.3	16	10.6

B. 구체적 목적에 대한 결과분석

1.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의 상태-불안반응의 비교.

연구대상 실험군과 대조군의 조사회수별 상태-불안반응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연구대상 실험군과 대조군의 조사회수별 상태-불안 반응의 비교

연구대상	조사회수 상태-불안점수	1 차 조 사		2 차 조 사		t 값
		산술평균	표준편차	산술평균	표준편차	
실험군		45.09	8.754	40.44	8.723	7.40**
대조군		44.78	7.929	48.29	9.594	9.21

** $p < 0.01$

임신말기에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는 교육받기전인 1차조사결과 상태-불안 반응은 45.09이었으나 교육후 2차조사에서는 40.44로 분만이 가까워짐에 따라 상태-불안반응이 완화됨을 나타내주었다. 또한 t-검정에 의한 1, 2차 조사간의 평균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40$, $p < 0.01$)

대조군에서는 1차조사에서 44.78, 2차조사에서 48.29로 분만에 가까워짐에 따라 상태-불안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만이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연령 및 학력별 상태-불안반응의 비교

연구대상 실험군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연구대상 실험군의 연령별 상태-불안 반응의 비교

상태-불안점수 연령(세)	실수(명)	백분율(%)	평균치
20-24	18	24.0	38.89
25-29	53	70.7	41.81
30-33	4	5.3	42.75
계	75	100	

$F=2.479$, $p > 0.05$

실험군에 있어서 연령구간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20-24세, 25-29세, 30-33세의 3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0-24세 집단에서는 상태-불안반응이 38.89, 25-29세 집단에서는 41.81, 30-33세 집단에서는 42.75로 연령이 많을수록 상태-불안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479$, $p > 0.05$).

연구대상 실험군의 학력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연구대상 실험군의 학력별 상태불안 반응의 비교

상태-불안 점수 학력	실수(명)	백분율(%)	평균치
중 졸	2	2.7	35.50
고 졸	41	54.7	42.17
대졸이상	32	42.7	38.53
계	75	100	38.53

$F=1.942$ $p > 0.05$

연구대상 실험군의 학력별에서는 임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졸집단에서는 35.50, 고졸집단에서는 42.17, 대졸이

상의 집단에서는 38.53으로 학력별 상태-불안반응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942, p>0.05$).

3. 연구대상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불안반응의 비교

연구대상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은 다음과 같다(표 5).

〈표 5〉 연구대상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별 상태-불안반응의 비교

상태-불안점수 일반적특성	평균치	F-값	p
<u>연 령</u>			
20-24	42.80	1.139	0.323
N=41	44.98		
25-29	46.00		
N=101			
30-33	46.00	2.321	0.102
N=8			
<u>학 령</u>			
중 졸	47.80		
N=5			
고 졸	45.69	0.651	0.421
N=71			
대졸이상	43.01		
N=74			
<u>종 교</u>			
유		40.250	0.001
N=133	44.02		
무	45.16		
N=17	45.16		
<u>임신주수</u>			
36주		40.250	0.001
N=45	36.89		
37주			
N=30	43.77		
38주			
N=23	44.17		
39주			
N=32	49.56		
40주이상		44.10	
N=20	54.55		
<u>현재 임신의 용납여부</u>			
원 합		2.136	0.146
N=134	44.10		

원치않음 N=16	47.31	2.136	0.146
--------------	-------	-------	-------

연령구간별에서는 20-24세집단의 상태-불안점수의 평균치는 42.80, 25-29세집단이 44.98, 30-33세집단이 46.00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상태-불안이 다소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F-검중에 의한 3집단의 평균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139, p>0.05$).

학력별에서는 중졸집단이 47.80, 고졸집단이 45.69, 대졸이상집단이 43.01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F-검중에 의한 3집단간의 평균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321, p>0.05$).

종교유무별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이 44.02, 종교를 갖지 않은 집단이 45.06으로 F-검중에 의한 2집단간의 평균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651, p>0.05$).

임신 제36주이상에서 분만시까지의 임신주수별에 대해서는 임신 제36주집단에서 36.89, 임신 제37주집단에서 43.77, 임신 제38주집단에서 44.17, 임신 제39주집단에서 49.56으로 평균치가 점점 높아져서 분만예정일 전후인 임신 제40주이상인 집단에서는 54.55로 현저히 높아 심한 상태-불안반응을 나타내었으며 F-검중에 의한 5집단간의 평균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0.250, p<0.01$).

현재 임신의 용납여부로 보면 현재 임신을 원하는 집단에서는 44.10, 원치 않은 집단에서는 47.31로 F-검중에 의한 두집단간의 평균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136, p>0.05$).

IV. 고 찰

교육은 일정한 계획하에 학습자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정 범모, 1976).

교육의 과정을 살펴보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방식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학습경험이 계속 실천되며 변화된 정도가 확인평가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최지운, 1977).

일반적으로 산전교육은 수정과 분만사이의 기간동안에 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중의 건강관리, 안전한 분만, 산후회복의 촉진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임신부들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조사(홍경자 외, 1973)에 의하면, 산모가 분만전에 알고 싶었던 것중에 진통과 분만기전에 관한 것이 초산부와 경산부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초산부에 있어서는 분만실의 위치나 구조에 관한 것, 경산부에게서는 신생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 임신

부들이 임신, 분만, 산욕, 육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 시기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임신기간 동안이고, 의사나 간호원에 의해서 지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Lameze는 조건반사이론과 피질흥분성의 신경생리학에 기초하여 임부의 불안, 공포 및 통제력의 상실을 보다 유효한 팔꿈치로 대지할 수 있도록 분만교육을 개발하였는데 그의 교육계획은 임부에게 생식기관의 해부와 신경근육활동, 분만기전 및 진행기전 및 진행경과 등을 가르쳐서 분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므로써 분만에 관련된 공포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한 것이다 (Karmel, 1959). 또한 Anderson(1977)은 임신말기의 임부들에게 요구되는 분만준비교육의 목표는 먼저 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분만에 대한 임부의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불안을 완화시켜서 분만중의 어려움을 극소화시키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홍경자와(1973), Lamaze(1959), Anderson(1977)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계획을 세웠으며, 임신말기의 초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만의 정의, 분만이 가까워졌을 때의 증상, 병원에 입원하는 시기, 입원후 산부에게 기대되는 일, 분만의 진행과정, 진통의 정의 및 진행과정, 복식호흡법, 힘주는 법, 호흡촉급법등을 내용으로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교육과 준비를 시켜서 분만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러한 교육의 효과는 임부의 상태-불안반응을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실험군에 있어서 산전교육을 받은 전과 후의 상태-불안반응을 비교하여 보면 산전교육을 받은 후에는 반기 전보다 상태-불안반응이 유의한 차이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7.40$, $p<0.01$). 이러한 결과는 분만교육과 임신부의 정서적 반응 및 태도와의 관계는 밝히면서 분만에 관한 산전교육으로 임부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분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임부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행동 및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분만중에 불안이 경감되고 신체적, 평안과 진통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Zax, Sameroff, Farnum (1975), Klusman(1975), Smith(1978), Kartchner(1950)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Dalzell(196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결과는 산전교육시에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단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령이나 학력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은 관계로 연령 및 학력에 따른 교육효과를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신말기의 초임부의 상태-불안반응을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았는데, Newton(1973), 나전영(1975)은 임신중에는 불안 및 공포감이 증가하고 분만후에는 감소된다고 하였으며, Hirst와(1938)에 의하면 임신된 100명의 임부중 적어도 75명이 임신되지 않은 상태에서보다 더 많은 불안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Tobin(1950)에 의하면 임신중 기분이 우울하게 되는 빈도가 65%로 비임신시의 5%에 비해 훨씬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그 우울한 임부들만을 분석한 결과, 울고 싶은 기분이 68%, 침울한 기분이 84%, 극도의 신경과민이 61% 등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임부들의 이런 정서적 반응을 임신기간별로 살펴보면, 임신기간은 대개 임신초기·중기·말기로 분류하는데, 각기마다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Eastman, 1971). 하영수(1968)에 의하면 임신초기에는 임부의 바수이상(60%)이 기분이 우울해지고 신경이 이상과민을 일으키나 임신중기에서 말기사이에는 소수로 줄어든다고 하였다. 또한 Grim(1961)에 의하면 임신중기에는 식욕이 증가하고 태동을 느끼는 시기로서 어머니가 될 기쁨과 책임감이 더욱 강해진다고 하였고; Davids, Dabault(1962)는 임신이 더욱 현실화되어감에 따라 강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나 임신말기에는 심리적 표현에 대한 불안도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은순(1976)도 임신기간에 따른 불안도의 평균치가 임신초기·중기에 비해 임신말기에는 다소 낮게 나왔으며, 정송자(1974)의 임신월령별 임신공포와 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임신전반기가 후반기보다 높은 공포감과 불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들 여러 연구에서는 임신전기간을 통해 대체로 임신말기에 다소 불안이 감소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 제36주이후 임신말기의 불안반응으로 분만이 가까울수록 침착성, 안정성,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감소되는 반면, 분만에 대한 두려움, 긴장, 염려 등 부정적인 상태-불안반응을 나타내었다.

그외 연령, 학력, 종교, 현재 임신의 용납여부에 따라서는 상태-불안반응의 유일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종교자 일수록 초임부에게 있어 더 많은 불안과 공포감이 있다는 하영수(1968)의 연구결과와, 종교생활을 하는 임부일수록 불안·공포감이 높다는 이영애(1979)의 연구 결과와도 상반된다. 교육정도별에서도 하영수(1968)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불안·공포감이 더 많다고 하였고, 홍성봉(1978)은 임부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신체적 변화에 잘 적응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에는 차이가 없었다.

현재 임신의 용납여부별의 조사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

서는 상태-불안반응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임신에서는 임부가 우선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고 모성을 기대하기는 하나 계획되지 않았던 임신이 반드시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남는 것만은 아니며 대부분의 임신은 계획되지 않았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 Newton(1963)과 Parks(1951)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필자는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이 초임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임신말기에 초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타연구 결과와 비추어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V. 결론 및 제언

1979년 5월 1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이화여대 부속병원 산과의래에 내원하여 산전진상관리를 받고 있는 임신말기(제36주이상)의 초임부중 150명을 대상으로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이 초임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초임부는

교육을 받지 않은 초임부보다 상태-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을 받은 초임부에 있어서 임부의 연령($F=2.479$) 및 학력($F=1.942$)에 따른 상태-불안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p > 0.05$).

3. 연구대상 초임부의 임신주수에 따른 상태-불안반응은 그 정도가 분만이 가까워질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F=40.25$, $p < 0.01$), 그들의 연령별($F=1.139$), 학력별($F=2.321$), 종교별($F=0.651$) 및 현재 임신의 용납여부별($F=2.136$)로 본 차이는 거의 없었다. ($p > 0.05$)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교육내용만을 가지고 단 1회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효과적인 산전건강간호계획수립을 위하여서 임부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본 연구에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상태-불안측정검사 외에도 초임부의 분만에 대한 태도측정과 같은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산전교육효과를 밝혀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참 고 문 헌

- 나 건영 「최신산과학」, 서울: 교문사, pp. 161-181, pp. 269-270. 1975.
- 유 태영, 오 재국 「서정각교육」, 서울: 익문사, p. 36. 1975.
- 이 미라, 홍 경자, 문 해리 중양의학, 제25권, 제6호, pp. 721-728. 1973.
- 이 영애 "코오넬의학지수에 의한 초임부의 심신건강평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이 중섭, 장 종태, 이 형식 「교수-학습의 실제」, 서울: 부민문화사 pp. 52-56. 1978.
- 정 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p. 30, pp. 67-68. 1976.
- 정 승지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제2호, pp. 131-143. 1974.
- 정 은숙 부산의대잡지, 제16권, 제2호, pp. 374-381. 1976.
- 최 지운 「학습지도」, 서울: 학문사, pp. 54-63, p. 101. 1977.
- 차 정기 「교수방법론」, 서울: 삼일각, pp. 190-192. 1976.
- 하 영수 중양의학, 제14권, 제4호, pp. 315-324. 1968.
- 「모성간호학」, 서울: 수문사, pp. 116-123. 1979.
- 홍 성윤, 진위교 「교수학습의 과정」, 서울: 교육출판사, pp. 57-63. 1976.
- Anderson, J. J.O.A.N. Nursing, Vol. 6, No. 2, pp. 53-54. 1977.
- Bloss, J.R. J.A.M.A. Vol. 144, No. 16, pp. 1358-1361. 1950.
- Chamberlain, G., Chave, S. Community Health, Vol. 9, No. 1, pp. 11-16. 1977.
- Dalzell, I. Nur. Res., Vol. 14, No. 2, pp. 160-163. 1965.
- Dauids, A., Debault, S. Psychosomatic Medicine, Vol. 24, pp. 464-470. 1962.
- Eastman, N.J., Hellman, L.M. Williams Obstetrics, 14th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p. 370. 1971.

- Fitzpatrick, E., Reeder, S.R., Mastroianni, L. Maternity Nursing, 12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1971. pp. 191~205.
- Goetting, T. J.O.G.N. Nursing, Vol. 6, No. 3, 1977, p. 54.
- Grim, E.R. Psychosomatic Medicing Vol. 23, 1961, pp. 520~527.
- Hirst, J.C., Strauss, F., A.J.M.S., Vol. 196, 1938, pp. 95~99.
- Karmel, M. Painless Childbirth,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1959.
- Kartchner, F.D. Am. J. OB. & GY., Vol. 60, 1950, p. 19.
- Klusman, L.E. J.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Vol. 43, No. 2, 1975, pp. 162~165.
- Lubin, B., Gardener, S.H., Roth, A. Psychosomatic Medicine, Vol. 37, No. 2, 1975, p. 136.
- Newton, N. Clinical Obstetrics & Gynecology, Vol. 6, 1963, pp. 639~665.
- Park, J. Am. J. OB. & GY., Vol. 62, No. 2, 1951, pp. 339~345.
- Read, G.D. Am. J. OB. & GY., Vol. 54, 1947, p. 702.
- Smith, E.D. J.O.G.N. Nursing, Vol. 7, No. 4, 1978, pp. 51~54.
- Spielberger, L.D., Gorsuch, R.L., Lushene, R.E.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0.
- Tobin, S.M. Obstetrics & Gynecology, Vol. 10, 1957, pp. 677~681.
- Willmuth, R. J.O.G.N. Nursing, Vol. 4, No. 5, 1975, pp. 38~42.
- Zax, M., Sameroff, A.J., Farnum, J.E. Am. J. OB. & GY., Vol. 123, No. 2, 1975, pp. 185~190.

Abstract

A Study on Antenatal Education about the Normal Course of Labor in Last Trimester of Gestation Influencing the State- Anxiety of Primigravida.

Moon , Young Sook *

The purpose of study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ntenatal education about the normal course of labor in last trimester (pregnancy 36 wks longer) influencing the State-Anxiety of primigravid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migravida'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ate-Anxie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between May 1. to October 20. 1979.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50 primigravidas who visited the out-patient of Department of obstetrics of Ewha Womans University Hospital.

The method used for the collection of data were Antenatal Education Curriculum made by researcher and State-Anxiety Inventory. The questionnaire of State-Anxiety Inventory is made up 20 items.

The data was analyzed by computer program.

The followings are results.

1. There was shown State-Anxiety to be alleviated by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p < 0.01$)
2.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 to State-Anxiety by age and education level.
($p > 0.05$)
3. In the investigation sample, according to the primigravida's gestation, there was shown State-Anxiety to be increased by closing to the delivery ($p < 0.01$).

There was no relation of State-Anxiety response by age, education level, religion and acceptance of pregnancy. ($p > 0.05$)

*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